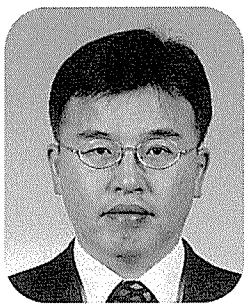
◆ 테마특집

'99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1. 국내경제전망

2. 해외경제전망

99년도 국내 경제 전망



온 기 운 실장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

1999년 2/4분기중 경기저점 통과예상

1998년중 -6%대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경제는 1999년 2/4분기중 저점을 통과하여 연간 2%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중 저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지표상의 근거로는 우선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1998년 7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과거 경험대로라면 7~8개월 뒤에 경기저점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산업생산 감소폭의 둔화, 제조업 가동률의 상승, 부도율의 완화 등도 1999년 중반 이후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주는 신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 이외에 정부의 정책이나 대외여건의 변화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9년중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로까지 확대시키는 가운데 자금주입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축소시켜 줌으로써 신용경색 완화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금리도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회복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일반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실제로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것은 통계지표상의 경기회복이 나타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1999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며, 이무렵부터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 성장회복이 보다 안정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하반기에 설비투자 플러스 증가, 건설투자 부진 지속

1998년 3/4분기까지 설비투자의 감소율은 전년 동기대비 46.5%에 이르렀으며, 연간으로는 감소율이 4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99년 상반기 중에는 설비투자 감소율이 7%대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감소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는 수출입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 가용자금의 규모, 투자 심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이므로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외환시장이 안정되면 상당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제 여건이 회복되는데

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199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이 1999년 상반기에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1999년 상반기 중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맞추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상황의 개선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순조로운 유입, 수출입 규모의 증가 등도 투자 규모를 늘리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9년 연간으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하여 설비투자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2%대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의 경우 1998년 3/4분기까지 감소율은 12.6%로 설비투자에 비해서는 감소율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설비투자가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투자 감소율은 4/4분기에 17.5%로 감소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1998년 연간 건설투자 감소율은 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연간 건설투자 감소율은 199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11%대에 이르러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투자 수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건축 허가 면적과 건설수주액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부실의 정도가 심하여 투자를 확장시킬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금리의 안정과 정부의 건축경기 활성화 대책이 건설투자를 위한 호재이기는 하나 1999년 연내에 건설투자 부진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경제 전망>

(단위:전년동기비, %)

	1998	1999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성장률	-6.1	1.2	2.9	2.1
최종소비지출	-10.8	0.3	1.6	1.0
(민간소비)	-11.2	0.3	1.6	1.0
(정부소비)	-8.2	0.6	1.7	1.2
총자본형성	-45.9	68.2	17.1	35.5
(설비투자)	-45.0	-7.4	2.8	-2.3
(건설투자)	-14.0	-16.5	-7.6	-11.8
재화와 용역의 수출	10.6	-12.5	1.2	-5.6
재화와 용역의 수입	-21.7	3.2	8.1	5.7
통관기준 수출입				
수출(억달러)	1,330	668	682	1,350
(증가율)	(-2.3)	(-0.4)	(3.4)	(1.5)
수입(억달러)	935	510	535	1,046
(증가율)	(-35.3)	(7.3)	(16.4)	(11.8)
수출입차(억달러)	395	158	147	305
국제수지				
상품수지(억달러)	427	170	160	329
경상수지(억달러)	408	145	112	257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7.8	1.3	1.9	1.6
생산자물가상승률	13.1	1.5	2.5	2.0
원/달러환율(기말)	1,210	1,170	1,150	1,150

자료:산업연구원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1998년중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침체와 수출입금융부진 그리고 수출단가 하락 등의 이유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5월 이후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서 98년 연간 수출실적은 전년보다 2.3% 줄어든 1,3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1999년에는 수출이 98년에 비하여 다소 회복되기는 하겠으나 증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9년의 수출여건을 점검해 볼 경우 호재와 악재가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호재중 첫째는 우리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아시아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년의 마이너스 두자리수 증가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수출단가 하락 현상이 98년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채산성 악화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8년에는 세계경기위축에 따른 각국간의 수출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각국의 수출단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동년 한해동안 전년에 비하여 단가가 18%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악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다. 악재중 첫 번째는 원화강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99년에도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증가로 달러공급 증가가 지속되어 원화는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99년에 엔화가 전년보다 더 이상 강세를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원화만 강세를 나타낼 경우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타격이 미쳐질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는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미국과 유럽 경기는 전년보다 오히려 악화되어 이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제품들은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선진지역들은 최근 우리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99년에 경기가 악화될 경우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25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1998년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400억 달러 가까운 대폭적인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1999년에도 수입이 1998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며, 수출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흑자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3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1999년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1998년에 비해 여전히 4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1998년 4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는 1999년에도 257억달러 정도의 흑자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가 여전히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화절상과 경기회복 등으로 여행수지에서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1998년 대폭적인 흑자를 나타내었던 이전 수지도 1999년에는 다소 소폭이나마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에도 원화절상 압력 지속

1999년중 원화가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요인중 중요한 것은 대나적 요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향방이다.

경상수지의 경우 1999년중 그 폭은 전년에 비하여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25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여 달러공급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9년에는 한국경제의 회복세 진입과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상승 등에 따라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활기를 띠어 자본유입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수지도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원화가치를 절상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요인으로서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가치 향방이

중요하다.

1999년중에 미국경제의 둔화조짐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 경우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미국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달러화 약세-엔화강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99년에 출범하는 유로화체제의 영향으로 국제투자자금들의 달러화자산 이탈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을 종합해 볼때 원화가치는 1998년보다 더 절상될 여지가 많다.

이에따라 원/달러 환율은 1999년말에 1,150원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으로는 1,170원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하향안정세 지속될 전망

1998년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물가는 1999년에는 안정기조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물가는 1.6%의 상승률을, 생산자물가는 2.0%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1999년에는 원화환율이 추가적으로 절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7년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이 1999년에도 약세를 유지하여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원유의 경우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와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1999년도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반전됨에도 불구하고 소폭에 그쳐 소비증가가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는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가격인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1999년에도 수요부진으로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요인은 1999년 상반기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인상의 가능성이다. 1998년 물가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은 재정에 있어서의 세수확보와 공기업 경영난 등의 인상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물가불안 요인보다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더 크게 나타나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종별 생산,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전년동기비, %)

	1998(추정)		1999(전망)			
			상반기		하반기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생 산	수 출
자 동 차	-29.4	-15.8	18.5	12.8	11.9	2.0
조 선	5.0	5.0	2.0	1.4	2.6	2.1
가 전	-31.7	-58.2	4.0	6.2	4.7	5.8
컴 퓨 터	-27.7	-13.0	12.9	15.2	21.0	15.9
반 도 체	-7.5	-3.9	13.0	12.6	13.4	12.8
통신기기	4.4	16.8	6.3	17.2	7.4	20.8
일반기계	-21.9	-4.8	-2.3	4.0	8.3	3.6
철 강	-7.8	18.0	-9.1	-20.7	3.8	-10.9
석유화학	6.8	3.2	4.5	5.0	4.8	4.9
섬 유	-0.4	-7.7	5.2	4.8	4.5	7.1
10개업종 평균	-	-3.9	-	5.1	-	6.0

자료:산업연구원

주:생산의 경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는 물량기준이며, 나머지는 모두 금액기준임.

철강, 석유화학 이외의 거의 모든 업종의 경기 회복 전망

1999년에는 대부분 업종이 수출 및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1998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신3저 현상의 유지 등으로 1998년보다 증가율이 높아져 철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는 1999년 상하반기 모두 두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도 1999년에는 수출증가가 가시화될 것이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수출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가전이나 일반기계, 섬유도 수출이 1998년의 마이너스 증가에서 플러스 증가로 회복될 것이나 증가율은 한자리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수입규제 강화와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1998년보다 수출이 크게 위축되어 상하반기 모두 두자리수의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1998년과 비슷한 정도의 수출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는 중반 이후 국내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 서서히 살아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모든 업종의 생산증가율이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99년도 세계 경제전망

왕 윤 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경제실장

본고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 출입 기자단 초청 정책간담회 중 1999년도 세계 경제전망과 우리의 대응 중 세계 경제전망을 발췌 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근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로 확산되면서 98년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아시아 경제위기는 위기 당사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를 급속히 침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총수요 감소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세계경제성장을 급격히 둔화시켰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촉발된 지 1년여가 경과한 현시점에서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혼란에서 벗어나 다소 안정세를 회복해가고 있으나 여러가지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어 아직까지도 향후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 세계경제성장전망 하향 조정 추이

주요 예측기관의 98~99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왔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범위와 파급효과의 심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다.

주요 예측기관의 2/4분기 전망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향후 엔貨의 급속한 하락과 중국 위안貨의 평가절하로 연계될 경우 아시아 경제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고 선진국은 경기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98년초 DRI(Data Resources Inc.)는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해 전망하면서 향후 위기의 전개방향에 대해 첫째, 멕시코식의 개혁과 경기후퇴, 둘째, 일본식 개혁지체와 스태그네이션, 셋째, 1930년대식 세계공황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아시아위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소로서 일본경제의 몰락, 중국 위안貨의 평가절하, 국가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공황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주요 예측기관의 3/4분기 전망은 향후 세계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WEFA는 낙관적으로 수정전

<표 1>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변화추이

(단위: %)

	1998				1999년			
	WEFA	DRI	JPM	IMF	WEFA	DRI	JPM	IMF
2/4	2.6	2.3	2.3	3.1	2.9	2.4	2.6	3.7
3/4	2.6	1.7	1.8	-	2.8	1.9	2.3	-
4/4	1.7	1.5	1.6	2.0	2.5	1.1	0.9	2.5

주: JPM은 J.P. Morgan

망치를 발표한 반면에, JP Morgan, DRI 등은 급속한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DRI는 7월 특별보고서(Asian Depression - World Recession, 1998. 7)에서 아시아위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멕시코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평가하면서 최악의 경우 세계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약 20~25%)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DRI의 이와 같은 전망치는 현재의 아시아 위기상황이 94년 멕시코위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우선 멕시코사태에 비해 외채규모 및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고, 당시 멕시코의 경우는 수출의 8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원조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지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日本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아시아 위기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볼 때 수출의 40% 이상이 域內貿易이기 때문에 수출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4/4분기에 들어 WEFA도 98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치를 크게 하향조정하였으나, 99년도 전망치의 경우 하향조정폭이 98년에 비해 크지 않다.

이는 8월 중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재현되면서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9월과 10월에 걸쳐 미 연준이 두차례의 금리인하를 실시하는 등 세계동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희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DRI와 JP Morgan의 경우 98년에 비해 99년에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부정적 전망을 하였다.

2. '99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정책공조노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위기가 조기에 수습되고 신흥시장의 금융불안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는 98년 2.0%의 성장에서 아시아경제의 회복, 선진국의 금리인하(추가금리인하 가능성 포함) 등 정책공조에 힘입어 99년 2.4%의 성장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본의 금융개혁과 경기부양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세계경제는 의외의 성장세를 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우세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적 기대를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대 그 자체가 현실화하는 경향이 실제로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예측기관별로 권역별 전망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이다.

JP Morgan은 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WEFA, IMF 등은 미국, 서유럽, 남미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에 일본, 한국 등이 여전히 극심한 경기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WEFA와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는 다소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에 남미의 성장세는 오히려 브라질의 IMF 긴축재정 프로그램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JP Morgan의 미국, 서유럽 등 선진권 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비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오히려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가. 미국

미국은 98년도 3.4%에서 99년도 2.5%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민간소비의 위축 정도에 달려 있다. 민간소비지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주가하락에 따른 富의 효과(Wealth effect)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의 개인저축률이 -0.2%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소비행태가 소득보다는 자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富의 효과를 창출하면서 소비지출을 자극하였던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조정국면을 맞으면서 최근 소비를 억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소비자신뢰지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도 향후 민간소비지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신뢰지수는 7월 이후 4개월째 계속 하향추세이다.

그러나 미 연준이 11월 17일 세번째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당분간 미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98년 4/4분기 소비지출은 상당폭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기업의 수익률 하락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둔화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12.6%, 22.3%의 증가율을 보였던 기업의 고정투자가 3/4분기에 8.8%로 감소하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다.

순수출의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의 악화도 향후 성장을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미국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바, 금년 8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 1~8월까지 1,09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표 2> 99년도 세계경제성장 전망

	1999년			
	WEFA	J.P.Morgan	IMF	KIEP
세 계	2.5	0.9	2.5	2.4
선 진 국	2.1	0.8	1.9	2.0
미 국	2.4	0.1	2.0	2.5
일 본	0.4	0.7	0.5	-0.1
한 국	0.6	2.0	-1.0	2.0
중 국	8.0	5.5	-	8.1
서 유 럽	2.4	1.7	2.5	2.4
南 美	2.8	0.0	2.7	2.0
중 동	2.8	-	2.7	2.6
아프리카	4.5	4.7	4.7	4.5

전년동기비 52% 증가하였다.

나. 서유럽

서유럽은 유로貨의 성공적인 출범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2.4%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경제는 97년 2.7%의 성장에 이어 98년에도 안정 성장세가 지속되어 2.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물가 및 금리안정, 통화가치 안정, 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 민간소비와 투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및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인 금융불안으로 확대되면서 유럽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어 99년에는 EU 경제성장률이 2.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EU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수출은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와 미달러貨 약세/유로화 강세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에 9.9%였던 EU의 수출증가율이 98년 6.5%, 99년 4.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U 참여국들은 금리인하 및 유로화 출범에 따른 시장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성장둔화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EU 평균보다 다소 높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 일본

일본경제는 98년 전후 최악의 수준인 -2.7%의 성장을 기록한 후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99년 다소 경기가 회복되나 -0.1%의 성장을 기록,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90년대초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불황기에 돌입, 8년째 심각한 경기후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1~97년 기간동안 연평균 1%대(81~90년 4%대)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98년 들어서도 일본경제는 기업수익의 감소로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4.3%를 기록하는 등 실질경제성장률이 전후 최악의 수준인 -

<표 3> EU 경제전망

	1997		1998		1999		2000	
	EU 집행위	WEFA	EU 집행위	WEFA	EU 집행위	WEFA	EU 집행위	WEFA
실질GDP성장률(%)	2.7	2.7	2.9	2.7	2.4	2.4	2.8	2.6
실업률(%)	10.7	10.9	10.0	10.3	9.5	10.0	9.0	9.8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9	1.6	1.8	1.7	1.9	1.8	2.0
경상수지(GDP대비, %)	1.5	1.5	1.5	1.2	1.4	1.3	1.4	1.3

자료: EU Commission, European Economy, Autumn 1998.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8.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는 11월 16일 총사업규모 23조 9,000억엔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긴급경기부양책을 확정·발표하였다.

同 부양책은 99년도 일본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시키고, 2000년에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일본 경제기획청은 금번 경기부양책으로 GDP 성장률을 2.3%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발표)

그러나 이는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부양책 규모이며, 재정지출 또한 지난 4월의 12조엔 규모보다 약간 밑도는 10.5조엔에 그침에 따라 현재 일본경제가 직면한 40조엔에 달하는 총수요부족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투자와 주택관련 감세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세효과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일본경제는 금융개혁법안 성립과 금번 긴급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위기는 당분간 회피할 수 있지만, 경기후퇴는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99년에도 일본경제는 민간수요부문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공적수요부문에서의 경기부양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99년도 일본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 社는 11월 17일 일본 국채와 엔화표시 채권 등에 대한 신용도를 최상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추었다.

이와 같은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일본 정부가 11월 16일 경기부양을 위해 전후 최대규모인 24조엔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직후 나온 평가라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표 6> 중국사회과학원의 금년 및 내년도 경제 전망치

(단위 : GDP대비, %)

국 가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캐나다	63.7	42.7	43.3	63.1	71.5	97.6	93.8	89.2	84.2
프랑스	-	-	30.9	38.6	40.2	60.1	64.6	65.7	66.4
독 일	18.1	23.8	31.1	42.8	45.5	62.2	65.0	64.5	64.2
이태리	38.1	57.6	58.1	82.3	104.5	124.2	121.7	118.5	116.1
일 본	10.9	20.7	49.6	65.3	62.6	77.8	87.1	96.5	99.5
한 국	23.5	21.7	16.0	16.3	8.2	2.9	1.0	2.1	4.5
네덜란드	51.5	41.8	46.9	71.5	78.8	78.5	71.4	69.5	68.9
스웨덴	30.5	29.5	44.3	66.7	44.3	79.8	77.4	74.8	71.4
영 국	77.1	61.6	54.0	58.9	39.3	59.7	60.3	59.1	57.5
미 국	41.5	39.9	37.0	49.5	55.5	63.1	61.5	60.3	59.7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지난 1997년 3%에서 5%로 인상한 소비세율을 다시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비세율 인하는 야당인 자유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민당내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반면에 야당인 공명당이 주장하는 무료상품권 배포를 받아들임.)

라. 중국

중국은 98년 경제성장목표치인 8.0%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9년 8.1%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부문의 침체와 기업의 만성적인 과잉생산 및 기업구조조정의 여파에 기인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인 8%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長江 유역과 동북지역에 집중된 금년도 홍수피해 규모가 200억 달러(1,666억 元)에 달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사회과학원측은 피해규모가 3,000억 元(GDP의 4%)에 이른다고 추정)

그러나 금년 하반기들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내수부양정책이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바, 최근의 거시경제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8%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한 江澤民 주석은 9억명에 달하는 농촌인구를 기반으로 국내수요를 진작시키면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인 8%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中國經濟 狀況에 관한 秋季報告'를 통해 98년 및 99년의 경제전망을 예측하였는바, 98년도 경제성장률 8% 달성을 무난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99년도 GDP 증가율을 금년보다 높은 8.6%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주요 예측기관들은 비록 최근의 내수경기 회복을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WEFA는 98년도 경제성장률을 7.0%로 예측하고 있으며, DRI는 이보다 낮은 5.0%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99년도 경제성장률의 경우 WEFA는 8.0%로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한 반면에, DRI는 최근 선진국의 정책공조 노력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라는 점에서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마. 동남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금융위기의 확산·심화로 98년중 동남아 경제는 내수가 크게

<표6> 중국사회과학원의 금년 및 내년도 경제 전망치

	단위	1998년	1999년
GDP 성장률	%	8.0	8.6
1차산업	%	3.2	3.5
2차산업	%	9.2	10.2
3차산업	%	8.3	8.5
고정자산투자	억元	28,800	33,300
실질증가율	%	15.5	14.5
명목증가율	%	16.3	15.6
소매물가상승률	%	-1.5	1.7
소비재상품소매액	%	8.7	10.6

부진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큰 폭의 환율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극심한 경기둔화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98년 경제성장률은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나, 위기당사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98년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각각 -15.2%,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99년 하반기부터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치적 불안이 회복세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99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각각 1.5%, 5.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 러시아

러시아는 98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98년 -5.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99년에도 경제난 극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이너스 5~6%의 극심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지난 8월 17일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심각한 경제적 혼란에 빠져 들었으며, 아직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同 조치 이후 러시아 루블貨의 가치는 폭락하였으며, 국내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98년 성장률은 -5.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옐친 대통령은 두마(하원)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주의자인 프리마코프를 총리러 임명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同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국가통제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및 민생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과거 러시아 정부의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同 프로그램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세부시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상당기간 경제위기 극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9년도 러시아 경제는 마이너스 5~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新내각의 경제정책이 통화팽창을 지향하고 있어 상당기간 물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대내외 채무조정이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내년중 공공채무에 대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현재 러시아의 공적 대외채무는 약 1,4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IMF와 러시아 정부간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에 대한 異見으로 IMF의 지원자금도입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사. 중·동구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중·동구에 미친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98년 3~4%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한 후 99년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금융위기는 중·동구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파급효과는 우려되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대부분의 중·동구 국가의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8월말 이후 신속히 외환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거의 8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98년 중·동구 지역경제는 전체적으로 3~4%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9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98~99년에 3~5%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체코, 루마니아는 98~9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대부분의 중·동구 국가

들에서 시현된 높은 수출증가세는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인 EU의 경기회복에 힘입었음. 99년에도 EU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전제로 할 때, 중·동구 국가들의 수출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환율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높은 수출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입확대로 인하여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수지 적자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중·동구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9년도 중·동구 지역경제의 최대 경제현안은 이들 국가의 EU 가입추진문제이다. 이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및 라트비아 등 5개국이 EU 집행위원회와 공식가입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이다.

개별 국가의 EU 가입협상의 진척은 이들의 국내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EU 가입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제고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EU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아. 중남미

> 브라질의 IMF 구제금융으로 중남미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었으나, 재정긴축으로 인하여 중남미 경제의 극심한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98년 중남미는 2.1%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99년에도 2.0%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중남미는 석유 및 곡물 등 주요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수요둔화로 인하여 대외부문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중남미 국가의 외환시장도 극심한 혼조 현상을 보이는 가운에 IMF는 브라질에 자금지원을 결정하였다.

11월 13일 IMF와 브라질 정부는 3년간의 브라질 경제 및 금융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종료하고, 총 41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브라질은 GDP 대비 재정적자를 현재 8% 수준에서 2001년 기초재정수지를 3% 흑자로 전환하는 초긴축정책을 펴나가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따라 중남미 경제의 극심한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MF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헤알(Real)貨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숙제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매달 5~7차례 미니밴드를 조정하여 연간 6% 정도의 평가절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브라질 헤알화는 20~30%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7년말 3.0~4.5%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던 중남미는 98년중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각각 0~0.5%,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남부지역은 4%,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안데스 국가들은 1.2%, 도미니카를 포함한 중미 국가들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9년에는 브라질의 긴축 프로그램으로 중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2.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 세계교역 전망

> 97년 9.7%를 기록한 세계교역 신장률은 98년 3.7%, 99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 9.7%를 기록한 세계교역 신장률은 올해 아시아 경제위기

의 여파로 급감세를 보여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로 각국의 대외수요가 위축된 것이 세계교역신장률을 급감시켰다.

권역별 교역구조면에서는 아시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됨에 따라 동지역의 수입규모가 전년보다 1/2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외환위기국가들의 급속한 경기침체, 이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경기둔화, 일본의 극심한 경기침체 등이 세계경제의 수요를 위축시켜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증가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IMF에 따르면 99년 세계교역은 올해보다 미미한 증가세를 보여 4.1%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99년의 세계경제성장이 올해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세계 총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에 아시아 지역의 경기호전으로 인해 동지역의 역내 및 역외로 부터의 교역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지역은 내년에 성장세의 둔화로 수입수요의 축소가 예상되나 최근의 달러화 약세추이 및 유로화 출범에 따른 역내교역의 확대가 동 지역 수출수요의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의 경우 세계 총수요가 회복세로 들어서면서 주력수출품목인 원자재 및 원유에 대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우 이들 국가들 GDP의 10~15%에 달하는 석유가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성장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세계교역신장 전망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WEFA	DRI	IMF	WEFA	DRI	IMF	WEFA	DRI	IMF
전세계	10.6	14.1	9.7	4.1	6.2	3.7	5.6	5.7	4.6
선진국	2.0	10.6		2.2	6.0		9.8		
미국	11.0	15.4		-0.6	5.0		0.5	4.2	
일본	14.4	8.7		3.7	5.4		7.5		
東아시아	4.6	25.2		-5.3	15.2		5.4	5.1	
한국	5.8	16.9		1.7	3.0		5.0		
중국	0.9	12.2		4.8	3.4		3.0	-4.5	
서유럽	-0.7	9.6		4.0	6.9		11.0	5.8	
南美	8.2	5.1		-3.7	5.9		10.1	8.9	
중동	0.6	4.6	1.4	-16.5	2.0	-8.5	9.5	0.9	-7.4
아프리카	6.5		-3.9	-1.7		-11.7	8.5		-9.3

주: 東아시아는 DRI의 경우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을 의미하며, WEFA의 경우 여기에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됨. IMF는 아시아 전체임. 1) WEFA와 DRI는 상품수출이고, IMF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임.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8.
DRI,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8.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1998.